

##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한자 문화권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

권순희\*

### 1. 머리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으로 『새한글성경』을 2024년 12월에 출간하였다. 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새로운 번역 성경이며, 쉽고 간결한 문장에 다양한 높임법을 사용하였고,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유명사의 음역을 교과서 기준에 맞추고, 도량형을 현대화하는 등 청소년 세대가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였다.

『새한글』의 주요 독자층은 한국인이겠으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문화 시대가 되면서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역시 『새한글』의 독자층이다. 박동현은 “한국어 사용자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재외 동포와 북한 동포,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읽는 사람, 그리고 21세기 청소년이 그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sup>1)</sup> 이에 다문화 배경의 독자층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새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1998년 『개역개정』과 비교하여 한자 문화권 유학생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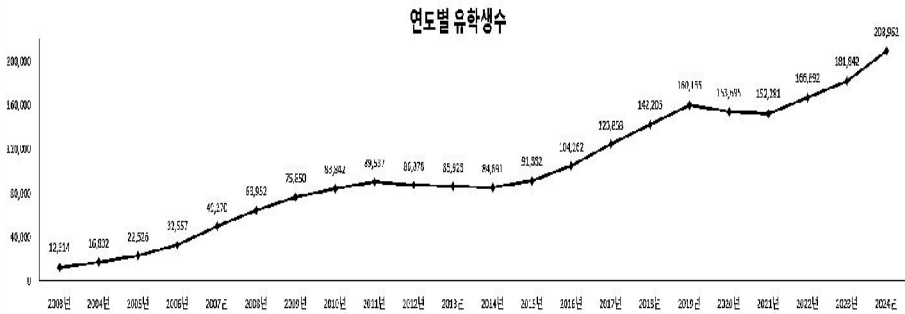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shkwonkim@ewha.ac.kr](mailto:shkwonkim@ewha.ac.kr). 본 논문은 2025년 4월 8일 영락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손동준, ““유월절은 6월이죠?” 묻는 세대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국민일보』, 2024.12.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81269&code=61221111&cp=nv> (2025. 2. 19.).

교육부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학생은 2014년 약 6.8만 명(전체 대비 1.1%)에서 2024년 약 19.3만 명(전체 대비 3.7%)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up>2)</sup> 부모 출신 국적<sup>3)</sup>을 살펴보면 베트남·중국(한국계 포함)이 약 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필리핀, 일본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다.<sup>4)</sup> 이주 배경 인구는 2020년 약 218만 명(총인구의 4.2%)에서 2040년에는 약 323만 명(총인구의 6.4%)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2).<sup>5)</sup>

이주 배경 학생과 더불어 유학생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연도별 유학생 수(<그림 1>)와 국가별 유학생 수(<표 1>)의 추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유학생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표 1> 주요 국가별 유학생 수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합계(명)
2021	67,348 (44.2%)	35,843 (23.5%)	8,242 (5.4%)	6,028 (4.0%)	3,818 (2.5%)	2,218 (1.5%)	28,784 (18.9%)	152,281
2022	67,439 (40.4%)	37,940 (22.7%)	8,608 (5.2%)	7,348 (4.4%)	5,733 (3.4%)	3,369 (2.0%)	36,455 (21.8%)	166,892
2023	68,065 (37.4%)	43,361 (23.8%)	10,409 (5.7%)	10,375 (5.7%)	5,850 (3.2%)	3,214 (1.8%)	40,568 (22.3%)	181,842

2)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4.8.29.), 3.  
 3) 2023년 기준 부모 출신 국적 비율: 베트남(32.1%), 중국(31.0%), 필리핀(9.1%), 일본(4.2%), 기타(23.6%).  
 4)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37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3.9.26.), 19.  
 5) Ibid., 1.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합계(명)
2024	72,020 (34.5%)	56,003 (26.8%)	12,025 (5.8%)	12,317 (5.9%)	5,250 (2.5%)	3,179 (1.5%)	48,168 (23.1%)	208,96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이며, 유학생 중 60% 이상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유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 대상으로 하되, 베트남, 홍콩 등 한자 문화권 유학생을 포함하여 『새한글』과 『개역개정』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새한글』, 『개역개정』의 이독성(易讀性, readability)을 알아보기 위해 <크리드(KReaD)>를 사용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경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집단과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준 및 성경 이해도에 맞춰 서면 설문 조사와 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비기독교 유학생 집단은 연구자가 설명을 보충하면서 서면 설문 조사를 한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기독교 유학생 집단은 연구자의 설명 없이 서면 설문 조사를 한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서면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추가 질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한 『새한글』 홍보물<sup>6)</sup>에 제시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개역개정』 중 읽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조사
- 『새한글』 중 읽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조사
- 무엇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조사
- 무엇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지 조사
-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인 조사
- 각 사례별로 차이를 인식하는지 조사

(예: 어려운 어휘 많음/적음, 전문적 배경지식 요구됨/요구되지 않음,

6) 참조, 대한성서공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새한글성경을 소개합니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정보량 많음/적음, 문장 복잡함/간결함)

이해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1~10점 척도 중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이해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설문 조사에서 한 문항의 성경 구절이 시편 112:1-3이라고 하면 한 문항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표시하거나 각 절별로 이해도를 표시하도록 재량권을 허용하였다. 비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절별로 이해도를 기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단위별 성경 구절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기독교 유학생이 기독교 유학생보다 성경의 문구를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6급 대학원생이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중언어 구사자이다. 비기독교 유학생 4명과 기독교 유학생 4명으로 구성된 참여 유학생의 전공은 모두 한국어교육이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명명	재학	국적	전공	한국어 습득 시기 (최초, 누적연수)	한국 체류 기간	TOPIK 자격 급수	성경 독서 여부	
비기독교인	A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7년, 7년 6개월	7년 5개월	6급	×
	B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베트남	한국어 교육	2020년, 5년	11개월	6급	×
	C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5년, 10년	5년	6급	×
	D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8년, 7년	3년 6개월	6급	×
기독교인	E	일반 대학원 박사수료	중국	중국어 교육 + 한국어 교육	2016년, 8년 6개월	9년 6개월	6급	2018년 교회 출석, 2020년 3월 믿기 시작했음, 매일 30-50분 성경 독서
	F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	중국	한국어 교육	2013년, 12년	10년	6급	2020년부터 예수님을 믿음, 매일 30분-1시간 정도 성경 독서

연구 참여자 명명	재학	국적	전공	한국어 습득 시기 (최초, 누적연수)	한국 체류 기간	TOPIK 자격 급수	성경 독서 여부	
기독인	G	국제 대학원 석사과정	홍콩	한국어 교육	2018년, 7년	7년	6급	2019년부터 2025년 현재 매일 30분 묵상, 매주 9시간 성경 공부
	H	국제 대학원 박사과정	홍콩	한국어 교육	2011년, 14년	8년	6급	주님을 믿은 지 4.5년, 매일 아침 성경 묵상 30분, 오후 30분-1시간 성경 독서

비기독 유학생 4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성경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이다. 비기독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9일(목) 오후 5시부터 76분간 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독 유학생 4명은 한국에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은 지 4.5년 이상 된 학생이다. 기독 유학생 4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6일(목) 오후 5시부터 66분간 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 3. 『새한글』과 『개역개정』의 이독성 비교

『새한글』과 『개역개정』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독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최소영, 박태준<sup>7)</sup>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정보 텍스트의 이독성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영 외<sup>8)</sup>가 제시한 질적 평가 요인 중 텍스트 이독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소영 외는 텍스트의 수준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은 텍스트의 ‘목적’, ‘구조’, ‘표현’보다는 주로 ‘내용’ 범주임을 확인하였다. ‘내용’ 범주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려운 어휘 많

7) 최소영, 박태준, “텍스트 이독성 질적 평가 요인의 설명력 분석 — 교육용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79 (2022), 251-294.

8) 최소영 외,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질적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어교육』 176 (2022), 1-57.

음/적음, 전문적 배경지식 요구됨/요구되지 않음, 정보량 많음/적음'과 같이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의 수준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요인, 문장 복잡함/간결함과 같이 문장 구조 복잡성 요인임을 밝혔다.<sup>9)</sup> 최소영 외의 결과로 추론해 볼 때, 『새한글』이 어휘와 문장에 중점을 둔 개정 방향은 옳았다.

이독성 측정으로 난이도를 쉽게 살펴볼 수 있는 AI 도구로는 <크리드(KReaD)>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육기업 대교와 천경록 외 국어교육 교수진과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투블럭 AI의 Deep NLP(인공지능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한국어 독해 지수로, 글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읽기 능력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크리드(KReaD)>는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두고, 사회, 과학, 실과, 문학, 화법과 작문, 인문, 정치와 법, 지리, 경제, 통합 과학,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초, 중, 고 교과서 총 64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용 어휘 28,000개를 추출하여 등급화하고<sup>10)</sup>,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말뭉치의 자료까지 포함한 250,000여 어휘를 1~10등급화하여 <등급별 어휘 목록>을 구축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sup>11)</sup>

<크리드(KReaD)>는 국어 텍스트 자동 분석을 통한 독해 지수 측정 방법 및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언어적 변수를 자동으로 분석해 텍스트 난이도 수준을 정량적 수치로 산출해 준다. 지수는 0~2,0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8세 수준의 난이도는 800대 지수로, 18세 수준의 난이도는 1,800대 지수로 표시된다.

『개역개정』의 창세기 2장을 난이도 AI 검사 도구 <크리드(KReaD)>에 입력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9) 최소영, 박대준, “텍스트 이독성 질적 평가 요인의 설명력 분석 — 교육용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 286.

10) 천경록 외, 「독해지수 개발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자동 측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보고서, 2020), 19, 29.

11) 교과서 말뭉치 및 50만에 달하는 6개 유명 사전 등재 목록과 표준국어대사전 50만 개 어휘 목록에 근거하여 교육용 어휘를 7등급으로 데이터 처리한 다음 책도 참조할 만하다. 김광해, 『등급별 어휘교육용 어휘』(서울: 박이정, 2003), 27.





『새한글』의 창세기 2장은 11~12세, 4~5학년 수준의 글이며, 문학적인 성격의 글로 판정되었다. 전체 글자 수 1,495자, 문단 수 10개, 문장 수 53개, 복문 수 36개, 단어 수 363개, 서술어 수 111개로 나타났으며, 어휘 다양성 비율은 0.43, 어려운 단어 비율은 0.45이다. 『개역개정』 창세기 2장에 비해 글자 수가 218자 더 많아졌으며, 문장 수, 복문 수, 단어 수, 서술어 수가 증가하였다. 본고의 결과값으로 살펴보면, 『개역개정』 창세기 2장에 비해 『새한글』 창세기 2장의 문단 수가 40% 감소하였으나 번역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창세기 2장을 3개의 문단별 편집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값으로 할 때는 문단 수가 약 3.3배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휘 다양성 비율은 비슷하며, 어려운 단어 비율은 0.15 감소하였다. 어려운 어휘 항목에 드러난 어휘 수가 『개역개정』 창세기 2장에서는 3개 제시된 반면, 『새한글』의 창세기 2장에서는 8개 제시되었다. 이는 『새한글』에 어려운 어휘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9.73학년을 기준으로 3개, 4.76학년을 기준으로 8개가 어려운 어휘로 산출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상에서 창세기 2장만을 조사한 것으로는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어 『개역개정』과 『새한글』에서 창세기 1장~5장을 입력하여 <크리드(KReaD)>를 통해 결과값 및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크리드를 활용한 『개역개정』 창세기 1장~5장 난이도

	난이도 (/학년)	전체 글자 수	문단 수	문장 수	복문 수	단어 수	서술어 수	평균 문장 길이	문장 구조 점수	복문 비율	명사 /서술어 비율	어휘 다양성 비율	어려운 단어 비율
1장	1,573 /8.73	1,675	30	30	30	425	141	14.03	24.69	100	1.47	0.25	0.46
2장	1,673 /9.73	1,277	25	25	23	322	95	12.88	23.35	92.00	1.66	0.44	0.60
3장	1,603 /9.03	1,546	24	24	24	406	134	16.92	27.01	100	1.46	0.41	0.39
4장	1,778 /10.78	1,498	26	26	26	376	117	14.46	25.57	100	1.73	0.45	0.67
5장	1,800 /11	949	32	32	23	231	73	7.22	14.09	71.88	1.63	0.38	0.53
평균		1,389	27	27	25	352	112	13.10	22.94	92.78	1.59	0.39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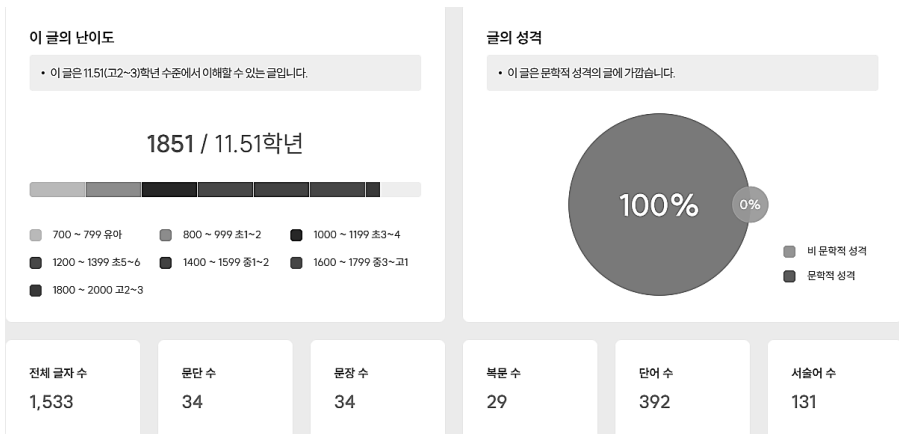
<표 4> 크리드를 활용한 『새한글』 창세기 1장~5장 난이도

	난이도 (/학년)	전체 글자 수	문단 수	문장 수	복문 수	단어 수	서술어 수	평균 문장 길이	문장 구조 점수	복문 비율	명사 /서술어 비율	어휘 다양성 비율	어려운 단어 비율
1장	1,026 /3.26	1,872	7	87	39	433	138	4.98	9.16	44.83	1.45	0.27	0.39
2장	1,176 /4.76	1,495	10	53	36	363	111	6.85	11.91	67.92	1.45	0.43	0.45
3장	1,107 /4.07	1,769	7	69	38	430	139	6.23	10.97	55.07	1.45	0.42	0.43
4장	1,242 /5.42	1,753	12	74	37	420	135	5.65	9.90	50.00	1.46	0.44	0.57
5장	1,215 /5.15	1,031	10	39	18	225	70	5.77	10.90	46.15	1.87	0.36	0.69
평균	1,153 /4.53	1,584	9.20	64	34	374	119	5.90	10.57	52.79	1.54	0.38	0.51

<표 3>과 <표 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장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사한 값이 도출되었다.

신약에서 한 장을 선택하여 난이도를 검사해 보았다. <크리드(KReaD)>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서비스는 2,000자라서 마가복음 1장은 34절까지 입력하여 결과값을 얻었다. 『개역개정』 마가복음 1:1-34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크리드를 활용한 『개역개정』 마가복음 1:1-34의 난이도 검사







이므로 『새한글』의 난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휘 다양성 비율은 『개역개정』이 0.52, 『새한글』 0.51로 유사하며, 어려운 단어 비율은 각각 0.64, 0.75로 나타나 『새한글』 마가복음 1장이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에 비해 어려운 단어가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단어 비율만으로 난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새한글』 마가복음 1장은 4.69학년 수준에서 추출된 어려운 단어 비율이고,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은 11.51학년 수준에서 추출된 어려운 단어 비율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개역개정』은 9~11학년 수준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이는 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난도가 가장 대중적이라고 본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난도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새한글』은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시로 보건대 『새한글』의 난도는 신약과 구약 부분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에 비해 『새한글』의 난도가 낮아졌으며, 한자어 및 복문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 문단을 나누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 문장부호를 넣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등 차세대 독자를 배려한 작업에 대한 의미는 실로 크다. 한국인 독자의 경우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새한글』 보급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도 『새한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보아 3장에서 살펴본 결과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4.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 분석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비기독교 유학생 4명, 기독교 유학생 4명에게 선별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이해도 정도를 1~10점 중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차이와 이해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찾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각 성경 구절에 대한 반응을 하단에 기술하겠다.

#### 4.1. 어휘와 문법 면에서 다른 이해도 반응

『새한글』은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한 문장을 50자 내외 16어절 정도를 넘지 않게 하였다는 번역 원칙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sup>17)</sup> 또한 앞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새한글』이 쉽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야 42:1-4에 대한 유학생들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5>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사 42:1-4)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 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 게 주었 <u>은즉</u> 그가 이방 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 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 리게 <u>하지</u>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 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 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 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 을 앙망하리라	1 (하나님) “보라, 나의 종 이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다. 내가 골라 뽑은 사람 이지. 내 마음에 들어. 내 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 다. 그가 정의를 민족들에 게 이루어 줄 것이다. 2 그는 소리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목소리가 거 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 을 것이다. 3 그는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스러지는 심지 라도 꺾 버리지 않을 것이 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4 그는 스러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을 것이 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까지는. 그의 가르침을 바 닷가 사람들이 기다릴 것 이다.”	A유학생 3/6 2/4 2/3 2/5	E유학생 8/7
		B유학생 8/8 10/10 10/8 9/10	F유학생 8/6
		C유학생 3/4 4/6 4/6 5/5	G유학생 8/8
		D유학생 5/7 4/5 3/3 2/4	H유학생 9/7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17) 대한성서공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새한글성경을 소개합니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3.

비기독교 학생은 성경에 대해 낯설다고 반응하였으며, 표현 전체보다는 어휘에 초점화하여 반응하였다. 이사야 42:1-4에 대해 비기독교 유학생은 『개역개정』 이해도에 2~10점으로 반응하였고, 『새한글』 이해도에 3~10점으로 반응하였다. 비기독교 유학생은 성경의 각 절마다 이해도를 응답하였는데, 69%가 『새한글』이 이해하기 쉽다고 답변하였고, 25%가 이해도가 동일하다고 답변하였으며, 6%가 『개역개정』이 이해하기 쉽다고 답변하였다.

『새한글』이 어렵다고 답변한 구절은 이사야 42:3이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구절보다 “그는 구부러진 갈대라도 꺾지 않고, 스러지는 심지라도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진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구절이 더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구부러진’, ‘스러지는’이라는 고유어는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어휘라고 반응하였다. 비기독교 유학생들은 『개역개정』이 종교적 느낌<sup>18)</sup>의 글이고, 『새한글』은 이야기식 글 같은 느낌이라고 반응하였다.

이에 비해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는 4명 중 3명이 한자어가 많은 『개역개정』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이해 정도가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 유학생은 『개역개정』 이해도에 8~9점, 『새한글』 이해도에 6~9점으로 반응하였다. 『새한글』에 대한 이해도 점수가 낮은 이유는 첫째,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한자 문화권 유학생이라 『개역개정』의 한자어에 친숙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들이 서울YMM교회(가명)의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묵상과 성경 독서<sup>19)</sup>를 자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역개정』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새한글』에 대한 비기독교 유학생과 기독교 유학생의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 비기독교 유학생이 대체적으로 『새한글』이 쉽다고 반응한 반면,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는 『개역개정』이 쉽다는 반응이었다.

이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개역개정』에서는 한자어가 더 많아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쉽다. 『새한글』에서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은 반면 모르는 고유어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이었다.

문법 면에서는 『새한글』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반응하였다. 『개역개정』에서 ‘-(하)리라’, ‘-은즉’, ‘-하지 아니하며’ 등 생소한 문법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데 비해 『새한글』은 ‘-것이다.’ 등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편하다는 반응이었다. 고린도전서 13:4-7에 대한 유학생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18) 장엄하고 고풍스러운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묵상과 성경 독서를 할 때 중국어 성경을 주로 이용하며 『개역개정』을 참조한다고 답변하였다.

<표 6>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고전 13:4-7)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A유학생 7/9	E유학생 9/8
	5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B유학생 9/8 10/10 10/10 9/10	F유학생 9/4
	6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C유학생 8/8	G유학생 9/7
	7 모든 경우에 감싸 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 냅니다.	D유학생 7/6 7/7	H유학생 9/6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고린도전서 13:4-7에 대해 비기독교 유학생은 『개역개정』이 절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고 형식이 같아서 더 정리된 듯하다고 반응하였다. 반면 ‘-느니라’ 등의 어미는 일상어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개역개정』에는 문장 부호가 없어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새한글』은 ‘-습니다’를 쓰고 있어 문장이 길다. “견디느니라”에 비해 “견뎌 냅니다”는 이해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새한글』에는 문장 부호가 있어 좋고, 마침표가 있어 좋다고 반응하였다.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은 문장이 길게 표현되어 있고, 『새한글』에서는 문장을 풀어서 말하듯 표현하고 있으나 어휘는 고유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G유학생), 느낌(→문체의 느낌, 어감)이 달라졌다(F유학생)고 응답하였다.

- 『개역개정』이 시적인 표현이 많은 반면, 『새한글』은 잘 모르는 단어가 많고, 구어체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E유학생)

-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다른 버전도 봤었어요. 『개역개정』의 ‘오래 참고’가 『새한글』에서는 ‘참습니다’가 되어 정도가 사라졌어요. 오래 참고 이거 들을 때는 오래 정말 근데 이게 『새한글』은 그냥 사랑은 참습니다. 가벼워졌어요. 저한테는 한국어는 정말 정도의 언어예요. 중국어에 비해서는. 근데 이 정도가 사라졌어요. ‘시샘’, ‘우쭐대지’는 사전 찾지 않으면 잘 몰라요. 처음 봤어요. ‘성내다’보다 ‘화내다’가 더 이해 잘되어요. (H유학생)

- 저는 『개역개정』이 시적인 표현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근데 『새한글』은 ‘않습니다. -습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새한글』에서 많은 단어들을 잘 몰라요. (F유학생)

‘시샘하지’, ‘우쭐대지’, ‘거들먹거리지’ 등의 고유어가 매우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개역개정』의 ‘성내지’라는 표현보다는 『새한글』의 ‘화내지’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답변하였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표현이 ‘사랑은 참습니다’로 개정되었는데, ‘오래’라는 시간적 정도가 빠진 듯하여 『개역개정』이 더 와닿는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 4.2. 문법 차이로 다른 느낌의 내용

『새한글』의 특징 중 하나는 장르에 따라 문체가 주는 묘미를 살린 것인데, 예를 들어 바울서신의 경우 나이 지긋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 격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학적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하계체’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디모데전서 1:1-2에 대한 유학생들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7>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딤펴전 1:1-2)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과 그리스	1 바울이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 2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	A유학생 6/8	E유학생 10/10
		B유학생 8/10 9/10	F유학생 7/8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u>궁홀</u> 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u>한결같은 사랑</u> , 평화 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C유학생 3/6	G유학생 9/8
		D유학생 5/7	H유학생 8/9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디모데전서 1:1-2에 대해 비기독교 유학생은 『개역개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바울, 디모데’ 등 인물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새한글』에서는 “마침표가 있고, 문장형<sup>20)</sup>이 잘되어 인물 관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디모데전서 1:1-2에 대해 기독교 유학생은 『개역개정』은 수식어가 많고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 또 ‘궁홀’이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4명 모두 답변하였다. 반면 『새한글』에서 ‘한결같은 사랑’은 이해가 잘되며 그 의미가 추측된다고 답변하였다.

- 『새한글』이 더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개역개정』을 풀어서 설명하는 느낌이다. (E유학생)

-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이라는 구절이 『새한글』에서는 ‘바울이네.’로 시작하고 있어 어순이 바뀌었다.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개역개정』의 ‘궁홀’을 『새한글』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꾸었는데, 표현 차이가 크다. (F유학생)

- 종결어미 ‘-네’는 완전 다른 느낌. (G유학생)

- 『새한글』의 문법이 더 쉬워서 이해하기 좋음. (H유학생)

『개역개정』에서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어려운 반면, 『새한글』은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등 문법적인 면에서 쉽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다. 기독교 유학생 4명 전원이 디모데전서 1:1-2에 대해 『새한글』이 『개역개정』보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디모데전서의 편지글은 두 역본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답변하였다. 『개역개정』보다는 『새한글』이 친밀도가 높은 편지글

20) 문장형은 중국인 유학생이 사용한 용어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가 각각 한 개로 구성되어 이해하기 편한 문장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로 이해된다고 반응하였다.

#### 4.3. 현장감 있으나 더 복잡해진 풀이식 표현

『새한글』에서 시편은 운문 형식을 고려하여 번역하였는데 예를 들어, 시편 130:1-6의 경우 시인의 탄식과 간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도록 원문의 어순까지 고려하여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시편 130:1-6에 대한 유학생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8>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시 130:1-6)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1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기도) 아주 깊은 데서부터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2 오, 주님, 들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를.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탄원하는 나의 목소리에. ... 5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품습니다. 이 몸이 희망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립니다. 6 이 몸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보다 더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들보다 더 간절히.	A유학생 6/9	E유학생 10/9
		B유학생 8/10 8/10 10/10 9/9	F유학생 8/6
		C유학생 4/7	G유학생 8/9
		D유학생 8/7	H유학생 7/9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시편 130:1-6에 대해 비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은 운율성이 있어

가요처럼 느껴지고, 『새한글』은 감정 표출을 생동감 있게 하는 거 같으나 깊은 뜻은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때 깊은 뜻이란 종교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번역자의 의도가 유학생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수꾼, 성전, 탄원 등의 어휘나 ‘-(이)소서, -하도다’ 등의 종결어미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개역개정』은 서술하고 있고, 『새한글』은 현실감 있게 구성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표현되었다). (E유학생)

- 번역자(→시편 저자)의 주관적인 감정, 생각을 들어내는(→드러내는) 느낌. 『새한글』에서 ‘탄원’이라는 의미를 모르겠다. 깊은 곳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새한글』 시편 130:5는 더 복잡해짐. (F유학생)

- 『개역개정』은 어려운 어미를 쓰고 있으나 시편 130:1-6이 간결함. 『새한글』은 쉬운 어휘를 쓰고 있다. 『개역개정』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를 『새한글』에서 ‘부릅니다. … 들어 주십시오, 내 목소리를.’로 쓰고 있는데 의미 전달이 약해짐. 문장이 너무 길어짐. ‘탄원’이라는 단어는 어려움. (G유학생)

- 『개역개정』 ‘부르짖는 소리’ vs 『새한글』 ‘탄원하는 나의 목소리’에서 느낌이 완전히 다름. 『개역개정』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보다 『새한글』 ‘기다립니다. … 더 간절히.’가 더 좋음. (H유학생)

#### 4.4. 대화 구성은 쉽지만 서법, 존대법의 다양화는 어려움

『새한글』의 번역 특징 중 하나는 서법의 다양화라고 전한다. 창세기 48:8-9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성을 나타내고자 ‘-렴’, ‘-마’ 등의 종결어미를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창세기 48:8-9에 대한 유학생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9>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창 48:8-9)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u>인</u>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 <u>애</u>	A유학생 6/7	E유학생 9/9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u>들은</u> 누구냐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u>그들을</u> 데리고 내 앞으로 <u>나아오라</u> 내가 <u>그들에게</u> 축복하리라	들은 누구냐?” 9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셨지요.” 그가 말했다. “ <u>아이들을</u> 내게로 데려오렴. <u>아이들을</u> 축복해 주마.”	B유학생 9/10 9/9	F유학생 9/9
		C유학생 7/9	G유학생 8/9
		D유학생 5/8	H유학생 8/8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창세기 48:8-9에 대해 비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에서는 ‘이르되, 아뢰되’를, 『새한글』에서는 ‘오렴, 주마’를 모르는 어휘라고 답변하였다. 이로 보건대 『개역개정』의 고어체 어미를 『새한글』에서 다양한 어미로 바꾸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어미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비기독교 유학생의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오렴’ 표현을 보긴 했는데, 남자만 쓰는 어미인가요? (A 유학생)
- ‘공부하렴’처럼 어른인 것처럼 행사하는 친구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B유학생)
- ‘하렴’에서 ‘렴’은 문장의 끝을 줄여서 말할 때 ‘ㄹ’을 쓰는 경우(예: 이제 마치다→이제 마침)가 있는데, 명사형 마무리처럼 만든 것인 줄 알았어요. (C유학생)
- ‘주마’에서 ‘마’가 금지를 뜻하는 것인지 헷갈림. (D유학생)
- 부산 사투리에서 ‘마’를 떠올렸음. (A유학생)

위 사례로 보건대, 한국어 교육에서 잘 다루지 않는 어미를 추론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유학생의 반응도 유사하였다. 반응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새한글』이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이해가 잘 됨. (E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이들은’, ‘그들을’, ‘그들에게’가 『새한글』에서 ‘애들은’, ‘아이들을’, ‘아이들을’로 각각 인칭대명사가 바뀌었는데 이해하는 데는 별 차이 없음. (F유학생)

- 『개역개정』의 어미 어려움, 『새한글』에 쓰인 어미는 약간 어렵지만 풀어서 써 준 느낌이다. (G유학생)

- 『개역개정』의 ‘오라’, ‘-하리라’가 『새한글』에서는 ‘오렴’, ‘주마’로 바뀌었는데, 이해하기 어려움. 『개역개정』의 ‘이르되’, ‘아되되’보다 『새한글』의 ‘물었다’, ‘대답했다’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함. (H유학생)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익숙한 표현이 아닌 경우 유학생은 『개역개정』의 고어투나 마찬가지로 『새한글』의 다양한 어미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새한글』 머리말에 보면, 시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혼잣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등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번역 원칙에 따라 시편 122:6-9에서도 (사람에게 하는 말), (혼잣말) 등을 표기하고 있다. 시편 122:6-9에 대한 유학생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10>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시 122:6-9)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u>형통하리로다</u> 7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u>형통함이 있을지어다</u> 8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u>말하리니</u> 네 가운데에 평안이 <u>있을지어다</u>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u>구하리로다</u>	(사람에게 하는 말) 6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렇게 빌어 보세요. “잘되기를,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7 그대의 성벽에 평화가 있기를! 그대의 궁전에 평안이 있기를!”	A유학생 6/8	E유학생 9/9
	(혼잣말) 8 내 형제와 벗들을 위해 나 이렇게 말할 거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 간절히 빌 거야,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B유학생 9/10 9/10 10/10	F유학생 5/7
		C유학생 7/9	G유학생 9/9
		D유학생 6/8	H유학생 10/7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시편 122:6-9에 대하여 비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 『개역개정』의 친구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새한글』의 ‘벗’은 익숙하지 않음. 교수님(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보니, ‘벗’이라는 어휘가 멋진 말 이네요. (A유학생)
- (사람에게 하는 말), (혼잣말) 구별하는 말이 있어 좋다. (B유학생)

기독교 유학생의 경우 『새한글』에서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편하고, 『개역개정』에서 이해할 때 놓치기 쉬운 표현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는 반응을 하였다.

- 『새한글』이 더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다. (E유학생)
- 『새한글』에서 대화 방식으로 제시하니 『개역개정』 말씀에서 놓치는 대화 내용을 보게 됨. (F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사용하는 어미는 어려운 어미이고, 옛날 느낌이다. ‘하리니, -(을)지어다, 하리로다’의 문법을 잘 몰라요. 『새한글』에서는 쉬운 단어 쓰고 있다. 반말을 써서 다른 느낌이 난다. 팔호 안에 배경,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G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을)지어다’가 『새한글』에서는 ‘-기를’보다 더 선포하는 느낌이 난다. (H유학생)
- 『새한글』에서 ‘빌 거야’와 같이 ‘빌다’를 쓰면 뭔가 기독교 같지 않음. ‘(혼잣말)’과 같은 표시는 매우 좋음. 거기서부터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H유학생)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다’는 표현을 써야 하고, ‘빌다’라는 표현을 쓰면 기독교적이지 않고 다른 종교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어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개역개정』에서 ‘빌어’, ‘빌고’, ‘비니’라는 어휘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4건이 검색되고 있어 중국인 유학생의 지적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빌다’라는 표현의 사용을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 (신 29:19)
-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 (삼하 14:22)
-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 (삼하 19:39)
- ...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롬 15:30)

그러나 기독교에서 ‘빌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한글』에서 ‘빌다’를 검색했을 때는 87건이 검색되고 있다. 87건 중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빌다’와 관련 있는 것만 선별하면 총 74건이 된다.

#### 4.5. 도치 문장 이해의 어려움

『새한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반영하여 부활하시기 전에 무리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태복음 5:3-10에 대한 유학생의 이해도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11>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마 5:3-10)

『개역개정』	『새한글』	비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기독교 유학생 이해도*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4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 9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10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 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미참여	E유학생 10/10
	F유학생 5/7		
	G유학생 9/7		
	H유학생 9/7		

\* 1~10점, 『개역개정』/『새한글』 순

마태복음 5:3-10에 대해 존댓말 사용에 대한 차이를 유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존댓말에 대한 인식보다는 도치법이 사용된 표현을 미완성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독교 유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 사용이 다르다. (E유학생)

- 『새한글』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에서 ‘일구는’의 뜻을 모르겠음. (F유학생)

- 『개역개정』은 문장이 길지만 전체적으로 간결한 느낌이 있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어려운 어미, 어휘들이 있어 높은 이해도에 도달하기 어렵다. 『새한글』은 『개역개정』에 비해 길고 풀어서 써 준 느낌이 있어서 배경지식이 덜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과 같은 문장은 미완성의 느낌이 있으며, 구어의 느낌이 있다. 이는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장 맥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G유학생)

- 『개역개정』은 한자어가 많아 이해하기 쉽고, 『새한글』은 문장이 미완성된 느낌, 구어 느낌, 문장이 많이 끊어져서 이해하기 어려움. (G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천국’이 『새한글』의 ‘하늘나라’보다 더 마음에 와닿음. ‘애통하다’가 ‘슬퍼하다’보다 정도가 더 높을 거라 여김. (H유학생)

앞서 살펴본 성경 구절과 설문 대상자들의 반응이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질적 분석 시점에서 심층 면담 분석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도 이상으로 심층 면담 결과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5. 마무리

『개역개정』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자 문화권 유학생들이 어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옛날 말투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에게는 어미 및 조사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고, 한번도 접하지 못한 어미가 나타날 때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에 나오는 ‘문자오되, 얼으리이까, 어찌하여, 일컫느냐’ 등과 같은 어미는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반면 『새한글』에 나오는 어미, 조사 등 문법 요소는 쉽다는 반응을 하였다. 길어진 풀이형 서술 역시 배경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고유어가 많이 들어간 부분의 경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새한글』에서 ‘규빗’, ‘리’와 같은 단위를 ‘미터’, ‘킬로미터’와 같이 현대 도량형 단위로 번역한 것을 선호하였다.

대부분의 외래어 번역에 대한 부분은 유학생의 경우 둘 다 어려운 것으로 반응하였다. 예를 들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표현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라는 표현의 경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읽거나 기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12>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라 4:11)

『개역개정』	『새한글』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1 임금님께 보내 드린 편지의 사본은 이러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노예들인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닥사스다 왕에게’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라는 번역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불편하고 가독성이 떨어짐. (H유학생)
- 『개역개정』에서는 강이라고 쓰여 있는데, 『새한글』에 ‘유프라테스강’이라고 명확하게 보여 줘서 더욱 이해가 잘 됨. (H유학생)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끓어 앓아’ 대신에 ‘무릎을 꿇고’로 개정된 어구에 대한 유학생들의 통찰력 있는 반응도 있다.

<표 13> 『개역개정』과 『새한글』의 유학생 이해도 반응(막 10:17-19)

『개역개정』	『새한글』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u>끓어 앓아</u>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19 ... <u>간음하지 말라</u> ...	17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u>무릎을 꿇고</u> 여쭙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 19 ... <u>배우자 아닌 사람과 잡자리하지 마라</u> , ...

- 『새한글』에서 『개역개정』의 ‘간음하지 말라’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잡자리하지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 묘사가 잘되어 마음에 더 와닿음. ‘끓어 앓아’라는 표현보다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이 느낌이 강함. (H유학생)
- 『개역개정』에서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장은 이해가 잘 안된다. 『새한글』에서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 단어가 어려워요. (F유학생)

- 맞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문법을 저는 평생 또 안 쓸 거 같아요.  
(G유학생)

- 저는 한자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새한글』처럼 바꾸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새한글』에서 이 말을 누구(→누가) 하는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H유학생)

결론적으로 『개역개정』과 『새한글』에 대한 텍스트 이해도 측면에서 비기독교 유학생은 2~10점까지 널리 분포되어 반응하였고, 기독교 유학생은 5~10점까지 반응하였다. 기독교 유학생에 비해 비기독교 유학생이 대체적으로 낮은 수치로 응답하였다. 한자 문화권인 유학생의 경우 『개역개정』에 나오는 한자어는 추론이 가능하여 이해하기 편하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개역개정』에 나오는 옛말투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새한글』에 나오는 고유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고, 문법 및 문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순의 완성된 문장이 아닌 문장, 즉 도치를 사용하여 어순이 변경된 문장,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시적인 표현의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하였다.

『개역개정』에 나오는 옛말투의 연결어미<sup>21)</sup>와 종결어미<sup>22)</sup>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개역개정』의 표현이 더 종교적인 느낌의 글이라는 반응으로 보아 옛말투가 장중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 유익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 『개역개정』, 한자 문화권 유학생, 크리드(KReaD), 난이도.

New Korean Translation, New Korean Revised Version,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ino-Korean Cultural Areas, KReaD, difficulty level.

(투고 일자: 2025년 7월 3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11일)

21) -(으)되, (으)때, -나니, -(으)느중, -거늘, -(으)르지니, -거니와, -(으)르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 -지나라, -하나라, -느나라, -리라, -지어다, -하도다, -소서, -(하)리로다, -이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교육부,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2024.8.29.).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3. 9. 26.).
- 김광해, 『등급별 어휘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2003.
- 김중섭 외,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 서울: 국립국어원, 2017.
- 대한성서공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새한글성경을 소개합니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4.
- 대한성서공회, “새한글성경 읽기”, <https://www.bskorea.or.kr/KNT/index.php> (2025.2. 19.).
- 손동준, ““유월절은 6월이죠?” 묻는 세대 위한 새한글성경 출간”, 「국민일보」, 2024.12.6.,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81269&code=61221111&cp=nv> (2025. 2. 19.).
- 천경록 외, 「독해지수 개발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자동 측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보고서, 2020.
- 최소영, 박태준, “텍스트 이독성 질적 평가 요인의 설명력 분석 — 교육용 정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79 (2022), 251-294.
- 최소영 외, “교육용 텍스트의 이독성 질적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국어교육」 176 (2022), 1-57.
- 한국교육개발원, “2024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101034> (2025. 2. 19.).

<Abstract>

**An Analysis of Comprehension Differences between the New Korean Translation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ino-Korean Cultural Areas**

Soon Hee Kwon  
(Ewha Womans University)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iculty level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published in December 2024, for foreign students, and to compare it with the New Korean Translation and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published in 1998, in order to identify any significant differences. Readability was assessed using KReaD, and foreign students' comprehension was investiga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The readability analysis revealed that the New Korean Translation was easier tha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in terms of both vocabulary and sentence structure. The New Korean Translation corresponded to the reading level of 4th to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as found to be at the level of 3rd grade middle school to 2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comprehension, non-Christian students gave scores ranging from 2 to 10 for both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nd the New Korean Translation, while Christian students gave scores from 5 to 10. Overall, non-Christian students showed lower comprehension levels than Christian students. Students from Chinese-character cultural backgrounds mentioned that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a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due to their ability to infer the meanings. However, they found the old-style connective and final endings in the same version to be unfamiliar and difficult to comprehend.

On the other hand, students reported that while the native Korean vocabulary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was sometime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grammar and sentence structures were generally easy to follow. Nevertheless, sentences that deviated from standard word order — such as inverted structures or poetic expressions not commonly encountered — were considered difficult.

Although the old-style connective and final endings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ere regarded as challenging, the expressions in this version were perceived as more religious and solemn. This suggests that the older style may serve a valuable purpose in conveying a dignified and reverent tone.